

‘활성적 공동체’의 노후 자원봉사활동*

주 성 수**

이 연구는 풀뿌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노후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의 최근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2009년 2천 가구 46,153 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는 60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개인별 설문자료들과 자치구별 통계자료들을 결합해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론적으로 ‘활성적 공동체’와 ‘활성적 노화’ 시각들이 제시하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춰 자치구 차원에서 자원봉사 참여도의 차이를 낚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노인들의 소득 수준이나 건강 등 인적 자본(human capital)뿐 아니라 일자리, 소득활동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풍부한 지역사회에서 노후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기초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비교 분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주제어: 노후 자원봉사, 활성적 공동체, 활성적 노화, 시민사회, 사회자본, 인적 자본, 경제활동, 소득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

** 한양대학교

1. 머리말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자원봉사활동도 점차 늘고 있다. 통계청(2009)의 자료를 보면, 2006-2009년 기간에 성인 자원봉사 참여율은 14.3%에서 19.3%로, 60세 이상 노인의 참여율도 6.5%에서 7.0%로 상승했다. 그런데 노후 자원봉사 참여율은 지역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며, 지역별로 참여도가 낮은 지역(부산, 대구)과 높은 지역(충남, 제주)이 두 배 이상 큰 차이가 있다.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심해서, 2009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최저 성북구 4%부터 최고 구로구 26.7%로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15세 이상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도는 20.3%이며 60세 이상 노인의 참여도는 13.4%이다.

이처럼 같은 서울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요인들은 복합적인 것으로 경험적 분석의 과제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 특유의 여건들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노인 개인들의 일반적인 특성들이 지역간 자원봉사 참여도의 차이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활성적 노화’(active aging) 이론에 따르면, 노후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하다. 또 이런 노인들의 생산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진흥시켜주는 ‘활성적 공동체’(active community)에서 자원봉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노후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의 교육과 소득 수준의 향상, 건강유지 등 개인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 요인들뿐 아니라 노후 자원봉사활동의 여건을 마련해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요인들과 밀접히 관련된다.

노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개인 설문자료에 의존해, 지역사회 차원의 비교분석을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자료의 유용성 때문에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는 경험적 분석이 어려운 것이다. 이 연구는 풀뿌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노후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의 최근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2009년 2천 가구 46,153 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는 60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25개 자치구별로 분류되어 있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개인별 설문자료들과 자치구별 통계자료들을 결합해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론적으로 ‘활성적 공동체’와 ‘활성적 노화’ 시각들이 제시하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춰 자치구 차원에서 자원봉사 참여도의 차이를 낳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노인들의 소득수준이나 건강 등 인적 자본(human capital)뿐 아니라 일자리, 소득활동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풍부한 지역사회에서 노후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기초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비교분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2. 이론적 고찰 : ‘활성적 공동체’의 ‘활성적 노화’

노후 자원봉사활동은 사회·경제적으로 활동적인 건강한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며, 또 이런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회제공과 풍부한 여건마련에도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되는 ‘활성적 노화’ 이론에 해당되며, 후자는 지역 공동체의 특성과 관련된 ‘활성적 공동체’ 이론에 기초한다. 이론들은 노인 개인별 특성과 지역사회 특성들이 노후 자원봉사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오랜 거주를 통해 공동체의 소속감 등 ‘지리적 안정’을 가진

노인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태어나고 오래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오랜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활동적인 노인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웃관계, 사회연계망이 봉사활동에 밀접히 관련된다(Smith and Gay 2005, 9).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로 하여금 육체적 활동에 참여해, 생산적 역할을 경험하고 사회적 접촉을 늘리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준다”(Lee and Brudney 2008, 24).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건강, 교육, 소득 등 인적 자본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는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생산되는 유대와 네트워크, 지역의 복지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 사회자본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민사회 이론에서 ‘활성적 공동체’란 노인을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 활동이 활성화된 공동체를 의미하며,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 건설의 주춧돌 역할을 하므로 자원봉사 없는 공동체의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주성수 2005). 이탈리아 지역공동체를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비교분석한 펫남(Putnam 1993)의 연구는 공동체간의 경제적 풍요의 차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 등 시민참여활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한다. 또 국가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가장 발전된 ‘활성적’ 시민사회가 ‘비활성적’ 시민사회로부터 구분되는 주요 특징은 시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시민사회단체 회원활동이라 분석되고 있다(De Hart and Dekker 1999).

또 ‘활성적 시민권’(active citizenship)에 초점을 맞춘 시민사회 이론들은, 자원봉사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실천하는 참여활동으로 ‘활성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밑거름으로 간주한다(Brown 2001; Slight 2005, 51). 이 같은 ‘활성적 시민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집합 단위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반면에 보수주의

시각에서는 개인 차원의 ‘활성적 시민’의 역할을 중시한다. 영국 노동당 정부에서 ‘활성적 시민권’의 의미는 “스스로 일을 해결하는 역량을 갖춰가며,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자치 역량을 가진, 활성적 공동체”의 건설에 기초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수당 정권에서의 ‘활성적 시민권’의 개념은 일자리 탐색이나 기술교육훈련 등 개인의 경제적 혜택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Lie et al. 2009, 703., 705). 이런 일자리 탐색이나 기술교육훈련과는 관계가 적은 노인들에게는, ‘활성적 시민권’의 의미는 주로 활성적 공동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며 동시에 공동체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자원봉사 등의 시민참여활동에 초점을 맞춘다(앞글, 705). 노후의 ‘활성적 시민’은 “독립과 유동성,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보존, 선택과 통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회에 최대한 참여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며, 자원봉사활동은 이 같은 ‘활성적 시민권’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Craig 2004, 112).

한편 노년학, 사회심리학 등에서 제시하는 ‘활성적 노화’ 이론에 따르면, ‘활성적 공동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신들의 ‘활성적 노화’의 욕구충족은 물론, 동시에 공동체의 삶의 질과 웰빙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세계보건기구(WHO 2002, 12)에 따르면, ‘활성적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정을 위한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라는 다차원적 건강을 포함하며 동시에 노후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진흥시켜 노인도 시민으로서 사회에 통합되어 권리를 누리는 과정”이다. ‘활성적’이란 의미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거나 노동력에 참여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개인의 필요, 욕구 및 역량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활성적 노화’ 이론은 노인들은 노년기에 들어서도 중장년 시절처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잃어버린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는 지속적인 활동이 바람직한 노년(age well)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Bengtson et al. 1997; 최희경 2010, 45).

이처럼 ‘활성적 공동체’는 노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활성적 노화’에 기여한다. 또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해결이나 서비스 제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의 ‘활성적 노화’는 ‘활성적 공동체’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노인들은 퇴직 이전부터 참여해온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생활의 습관이기도 하지만, 다른 노인들은 퇴직으로 가능해진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거나 생애 처음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해 ‘활성적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Smith and Gay 2005, 10). ‘활성적 공동체’에서 이뤄지는 ‘활성적 노화’는 노인, 은퇴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은 연약한 수동적 존재라는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공동체에 그리고 사회 전반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으며 또 기여할 의지를 갖고 있는 능동적이고 활성적인 집단”으로 간주된다(앞글, 24). 은퇴 또한 “책임의 상실과 인생의 의미 상실”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퇴직의 기회가 생애 주기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다면적 단계라는 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다(앞글, 24).

이상과 같이 노후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의 ‘활성적 노화’의 결정적인 구성요소이자 ‘활성적 공동체’를 만드는 핵심적인 활동이다. 이 활동은 노인 개인들의 능력과 선호에 많이 의존하면서도, 노인의 참여를 이끄는 지역사회의 여건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후 자원봉사활동은 능력 있고 건강한 노인들의 욕구와 선호의 발동이자,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가 제공하는 기회 제공과 여건 마련이라는 두

요소들이 결합된 시너지로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선호에 기초하면서도 지역 공동체 차원의 공익적 집단활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의 개념으로 이해된다(이선미 2001; Jones 2006). ‘시민참여’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민참여’의 개념은 “지역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적인 활동에서 자원봉사 또는 일자리 참여와 관련된 역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Kaskie et al 2008, 370). 자원봉사와 일자리 등의 ‘시민참여’는 퇴직한 노인들의 ‘활성적 노화’의 핵심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활성적 노화’의 시각에서 노후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은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0-50대 중년에 가장 많고, 6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70, 80대로 가면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활성적 공동체’에서는 노인들이 수동적인 자원봉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의 주체가 되어, 노인 자원봉사 참여율이 일반인 자원봉사 참여율에 버금갈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유럽 10개국의 비교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장년층 봉사활동이 많은 상위 3개국(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의 경우, 65-74세의 노인층 자원봉사 참여율이 50-64세보다 더 높다(Böorsch-Supan et al. 2005). 또 미국에서는, 유타, 미네소타, 캔사스, 사우스 다코다 등 4개주는 노인 자원봉사 참여율이 일반인 참여율보다 더 높은 전국 최고수준이며, 주요 61개 도시 가운데 미네아폴리스, 솔트레이크 시티, 로체스터, 달라스, 볼티모어 등도 노인 자원봉사율이 일반인 자원봉사율을 능가하는 ‘활성적 공동체’의 특성을 보여준다(CNCS 2010b).

3. 노후 자원봉사활동의 요인들

노후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 연구들도,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요인들과 노인 개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에 초점을 맞춰 주목할 만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적절한 소득을 갖고, 좋은 건강을 유지하며,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종교적 집단에 소속되어, 지역사회에 강한 연고를 갖고 있는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Ruthford 2006, 8). 또 “사회경제적 신분이 높고, 기혼자로, 종교와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며, 광범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고, 자원봉사 경력자”인 경우,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Warburton et al. 2001, 588). 또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차이는 교육과 소득 수준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활동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나아가 정신적 건강(우울증)과 육체적 건강(ADL)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다(Butrica et al. 2007, 10-11). 또 개인별 능력, 문화적 가치관, 사회적 관계 자원 등이 노후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꼽힌다(Wilson and Musick 1976; 이현기 2010, 264). 이상과 같이 노인 개인 차원의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를 지역사회 차원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인적자본, 사회자본, 경제활동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1)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의 자격을 갖게 해주고,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조직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매력을 갖게끔 해준다(Wilson and Musick 1997, 698). 일반적으로 자본이라는 무엇

이 생산되는지, 생산물과 밀접히 관련된다. 인적 자본 이론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교육, 기술, 소득과 같은 자원들을 봉사활동에 투입해 공동체 공익에 기여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욕구도 충족시키는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한다(이현기 2009, 322).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저소득이나 저학력의 노인들에 비해 더 많이 참여하므로, 고소득, 고학력의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봉사활동 참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높은 교육수준은 지적 능력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유대, 사회조직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인적 자본으로 꼽힌다(McPherson and Rotolo 1996). 소득과 학력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원봉사 참여를 높이는 것은 높은 지위가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더 많은 인적 관계 형성을 갖기 때문이며, 이런 인적 자본이 풍부한 사람들이 여러 조직들에서 중요한 자원봉사자로 우선적으로 충원된다고 볼 수 있다(Wilson and Musick 1997, 710).

선행 연구들의 경험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5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인적 자본으로서 교육과 소득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한다고 분석하고(이현기 2009, 336), 또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차이는 교육과 소득 수준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다(Erlinghagen and Hank 2005, 10-11). 또 미국 주(state) 차원의 비교연구는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많은 주에서 더 많은 봉사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CNCS 2010a, 7). 그러나 ‘인적 자본’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과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아지는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중졸 학력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다(통계청 2009). 그러나 소득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참여

하는 경향이 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먹고살기 바빠서 봉사활동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봉사활동 참여가 어려운 취약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퇴직 후에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으로 의미 있고 생산적인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도 있다. 빈곤층이 많은 지역에서 봉사활동이 저조하다는 미국 국가봉사단(CNCS 2010a)의 분석을 참고해보면, 한국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한국은 노인(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어(OECD 2009), 노인 빈곤이 지속되는 한 노인 자원봉사참여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건강 또한 중요한 인적 자본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는 건강을 개선시키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가능성이 더 많아,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는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Wilson and Musick 1999, 161). 자원봉사 활동이 동반하는 건강상의 혜택은 여러 측면으로 나타난 것으로 연구되었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사망율을 감소시키고, 기대여명을 늘릴 수 있고 신체적 건강을 유지시켜 주며(Connors 2008, 10; CNCS 2006, 8), 나아가 역할 정체성과 심리적 웰빙을 증진시켜주고, 자기존중감, 생활만족도, 행복감을 높여준다(이현기 2009, 324). 유럽 10개국 비교분석에서는 주관적 평가에 의해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들이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았고, 또 우울증을 보인 노인보다 그렇지 않은 노인들의 참여도가 높았지만(Böorsch-Supan, et al. 2005), 한국에서는 ‘주관적 건강평가’ 요인이 중고령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현기 2009, 337). 미국의 연구에서는, 75세 이상이거나,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자원봉사 활동가능성이 줄어들고, 반면에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

가 양호하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노인들이 봉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Erlinghagen and Hank 2005, 9). 또 봉사활동의 시작과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개인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로 지적되었고(Butrica et al. 2007), 지역 차원에서는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은 지역이 비교적 낮은 사망률과 낮은 심장병 발병율을 보여준다는 미국 국가봉사단(CNCS 2007b, 10-11)의 분석을 참고할 만하다.

2) 사회자본

또 ‘사회적 관계’ 자원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많은 사회활동을 통해 폭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노인들의 경우도 그러하다는 연구결과를 주목해볼 수 있다. 자원봉사와 사회자본은 상호 강화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교제하며 폭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활동에 더 활발하며, 또 이런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지역의 사회자본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Smith and Gay 2005, 10). 이처럼 개인적 접촉 등의 관계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의 참여 요청을 많이 받는다. 또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이 타인과의 유대감이 강하고 실제로 봉사활동으로 돕는 경향이 있다. 종교단체나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회원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 돕기나 자원봉사의 규범을 공유하며 실제 봉사활동 참여가 높다(Einolf 2009, 184). 그러나 자원봉사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는 인과적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사람들과의

친교를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사회적 관계가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지만, 역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결과, 사회적 관계가 늘어나고 사람들과의 유대와 신뢰 등의 사회자본이 축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Wilson and Musick 1998, 702).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한 복지단체나 시민사회단체를 매개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조직들에 소속되어 회원으로 활동하는 개인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이 조직들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봉사활동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 복지기관 등 자원봉사 수요처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공급하는 공급처의 역할도 노후 자원봉사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원봉사활동은 수요(자원봉사자의 특성)와 공급(자원봉사조직의 역할)의 균형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복지기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또는 이 조직들에서 활동하는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노후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영리기관들의 자원봉사자 모집과 홍보, 교육과 관리 등의 역할에서 지역 간 두드러진 차이가 있기 때문에(Putnam 1993; Hong et al. 2009, 203), 자원봉사활동 수준의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노후 자원봉사 참여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비영리조직들을 갖고 있는 지역(state)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진다는 미국 국가봉사단(CNCS 2010a, 9)의 최근 연구결과를 참고해볼 만하다.

3) 퇴직과 소득활동

퇴직과 더불어 시간적 여유를 가진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의 분석결과는 양분되어 있다.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시간은 그간 미뤄두었던 여행이나 여가 등의 시간으로 활용되며 그간 봉사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조차도 봉사활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또 퇴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겨도 건강이 악화되면 봉사활동 참여는 어렵게 되며, 또 퇴직으로 인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라지면서 자원봉사의 권유나 요청도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퇴직이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늘리는지, 줄이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선행 연구들은 같은 연령대의 노인들 가운데 퇴직을 한 노인이 여전히 일하는 노인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도가 약간 더 높을 정도라고 분석한다(Einolf 2009, 184).

또 퇴직과 일자리와 관련된 노후의 경제활동은 자원봉사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높은 소득을 가진 노인들이 퇴직 전에 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또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봉사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자리를 가진 노인들이 봉사활동에 더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직장생활을 통해 직장에서 또는 직장동료들과 더불어 또는 직장 관련 단체활동이나 대인관계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현기 2010, 268). 그렇지만 퇴직 후 노후설계를 가족돌봄이나 여행 등의 여가활동을 계획한 노인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충’(complementality) 가설은 직장활동이나 사회활동 등 활동이 많은 노인들이 퇴직 후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봉사활동 참여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이에 반해 ‘대체’(substitution) 가설은 직장생활에 얽매어 취미와 여가활동을 못했던 노인들이 봉사활동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노후 자원봉사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 가운데 이 같은 취미와 여가활동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일자리와 자원봉사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부는 대체 가설을, 다른 일부는 보충 가설을 각기 지지한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미국 연구자들의 분석으로(Caro and Bass 1997), ‘대체’ 가설을 지지한다. 일자리를 가진 장년층은 시간여유가 없어 봉사활동 참여 가능성이 적고 또 봉사활동의 강도 면에서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떠나는 은퇴 후에 자원봉사활동이 높아진다는 가설이다. 그렇지만 은퇴가 노인의 봉사활동의 참여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영국에서는 통계상으로도 퇴직 후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여행 등 여가나 취미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uthford 2006, 10). 캐나다의 베이비부머들은 부모나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고,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고용활동, 또 다양한 취미활동 등에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등 가장 분주한 상황에 있어, 시간이 없어서 봉사활동을 안하고 있다는 답이 67%로 매우 높게 나왔다(Connors 2008, 14). 한국의 노인 비자원봉사자의 불참 이유도 시간이 없어서(48.4%), 건강 문제로(21.4%), 나이 때문에(11.4%) 등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반면에 일자리가 있는 노인이 일자리가 없는 노인에 비해 봉사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보충’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웃돕기나 봉사활동의 경험이 많은 직장인이 노후에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업 봉사활동 등 일자리와 관련된 봉사활동에 익숙한 장년층의 참여도 높다는 분석도 있다(Okun, Barr & Herzog 1998; Wilson & Musick 1997). 또 6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일자리를 대신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는 ‘대체’ 가설은 맞지 않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반대로 일자리를 가진 노인들이 더 많은 봉사활동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며, ‘보충’ 가설

을 지지한다(Mutchler et al 2003, 1272).

4. 자료와 분석

1) 자료와 변수

이상과 같이 경험적 분석을 기초로 하는 선행 연구들이 제시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비교분석을 위한 자료의 유용성을 검토한 다음, 아래와 같은 주요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속변수인 노인 자원봉사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설정하였다.

(1) 자료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와 일반 통계자료로 구분된다. 통계자료는 자치구별 인구통계, 60세 이상의 노인 통계,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복지시설 통계 등으로 25개 자치구별로 구분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 설문자료는 ‘서울 서베이’ 가구조사의 최근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9년 서울 서베이는 20,000 표본가구의 전체 46,153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 노인은 6,705명이다.

서울서베이 자료에 소개된 종속변수인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설문지에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60세 이상 노인들의 비율(%)이다. 또 독립변수들은 자치구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노인인구에 비례한 백분율 자료에 기초한다. 독립변수들 가운데 <표 1>에서처럼

12개 변수들을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다. 표에 소개된 ‘고령노인’ 자료는 노인인구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노인의 비율로, 신체적 활동의 제약을 받는 고령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가정한다. ‘건강취약노인’ 자료는 노인인구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생활가정,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노인과 재가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수를 자치구 전체 노인의 수에 대비한 비율이다. 건강취약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성적 노화’의 주체라기보다는 반대로 자원봉사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라 볼 수 있다. 또 ‘무소득노인’ 자료는 서울 서베이에서 “일정한 소득 있는 경우,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하는 물음에 ‘소득 없음’으로 답한 노인의 비율(%)로, 전체 평균이 24.1%이며, 월 5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노인은 29.4%로 나타나, 월 5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거나 소득이 없는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노인의 사회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은 서베이의 질문, “귀하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직장이나 모임이 있으신지요?” 하는 물음에 여덟 가지 중 복수로 선택한 노인의 비율(%)을 보여준다. 여덟 가지 유형과 평균 빈도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8.6%), 2) 노인정(20.1%), 3) 복지관, 노인교실(8.9%), 4) 자원봉사활동 모임(2.4%), 5) 취미활동 모임(6.6%) 6) 종교활동 모임(14.2%), 7) 시민단체, 사회단체(0.8%), 8) 직장이나 특별한 모임이 없음(51.6%) 등이다. 노후에도 직장생활을 노인이 8.6%인 반면, 직장이나 특별한 모임이 없다고 답한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종속 변수는 연구의 목적이 되는 자치구 사이의 노후 자원봉사 참여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 60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다. 서울 서베이 설문지에는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의 백분율을 지칭한다.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고령노인’ 변수는 80세 이상 고령노인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 비중은 자치구에 따라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1%에 이르는데, 고령노인이 많은 지역일수록 자원봉사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으로, ‘인적 자본’ 관련 변수들은 다섯 가지로, 먼저 소득 관련 변수들로는 저소득노인, 무소득노인, 두 변수가 있다. 저소득노인은 노인의 빈곤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변수로 일반적으로 저소득노인이 많은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무소득노인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다는 개인 응답의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퇴직을 했거나 건강 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이다. 또 노후에도 직장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경우 직장이 없는 노인들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앞의 선행연구 고찰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또 독거노인과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도 자원봉사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과 건강취약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참여도가 비교적 낮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자본 변수들의 경우, 자원봉사의 수요처가 되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급원이 되는 노인들의 사회단체 활동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자원봉사의 주요 수요처가 되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노후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또 노인 개인 차원에서 사회단체활동이 왕성한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교단체, 복지관과 노인교실(노인대학) 활동, 노인정(경로당) 활동, 취미단체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노후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특히 단체활동 중 어느 활동이 자원봉사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며, 나아가 단체활동 중 자원봉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단체활동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단체활동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분석의 초점이 된다.

〈표1〉 독립변수와 기술통계량

| 독립변수 | 자료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값 | 표준편차 |
|---------------|----------------------|------|------|------|-------|
| 고령노인 | 노인인구 중 80세이상 노인비율 | 15.0 | 21.0 | 17.5 | 1.87 |
| (인적자본) | | | | | |
| 저소득노인 | 노인인구 중 저소득층비율 | 1.2 | 18.3 | 9.0 | 5.45 |
| 독거노인 |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비율 | 13.0 | 30.0 | 21.9 | 3.78 |
| 건강취약노인 | 노인인구 중 시설노인비율 | 0.4 | 3.2 | 1.2 | 0.66 |
| (경제활동) | | | | | |
| 직장활동 노인 | 직장활동중인 노인비율 | 2.2 | 30.7 | 8.8 | 5.85 |
| 무소득 노인 | 소득이 없는 노인비율 | 4.8 | 53.3 | 23.3 | 12.73 |
| (사회자본) | | | | | |
| 복지시설수 | 노인인구 100명당 복지시설비율 | 2.7 | 5.0 | 3.7 | 0.74 |
| 종교단체활동 | 종교단체활동 노인비율 | 6.3 | 25.8 | 14.2 | 4.83 |
| 노인정 (경로당) | 노인정(경로당)활동 노인비율 | 1.9 | 37.4 | 21.1 | 10.69 |
| 복지관 (노인교실) | 복지관과 노인교실 활동노인비율 | 3.1 | 19.8 | 8.6 | 5.38 |
| 취미단체활동 | 취미단체활동 노인비율 | 2.1 | 14.6 | 6.6 | 3.69 |
| 사회활동 없음 | 직장도 사회활동도 없는 노인비율 | 33.0 | 74.0 | 50.4 | 10.85 |

주요 독립 변수들은 선행연구의 논쟁이 되었던 ‘대체’ 또는 ‘보충’의 가설을 검증해볼 수 있는 변수들이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노인

게 자원봉사는 직장생활의 보충인지, 대체가 되는지, 또 소득활동을 하는 소득노인이 무소득노인에 비해 소득활동에 보충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먹고살기에 어려워 소득활동에만 전념한 나머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인지 검증해볼 만하다. 또 사회자본 측면에서는 노후생활의 중요한 시간을 취미나 오락 등 여가에 투자하는 노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은 대체인지, 보충인지를 알아볼 만하다.

3) 분석결과

먼저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노인 자원봉사 참여율과의 상관계수는 복지관과 노인교실 활동(.485), 건강취약노인(-.456), 두 변수가 0.01 수준에서 그리고 무소득노인(.295) 변수가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지역에서 복지관과 노인교실 활동을 하는 노인과 소득이 없는 무소득노인이 많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건강취약노인이 많을수록 자원봉사참여율이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반면에 다른 독립변수들의 경우 80세 이상 고령인구(-.091), 소득50만원 미만(-.015), 독거노인(-.010), 직장생활노인(-.103), 복지시설수(-.002), 노인정(경로당) 활동(.237), 종교단체활동(-.138), 취미단체활동(-.089), 사회활동 없음(.186) 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중 회귀 분석으로 종속변수인 자원봉사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회귀모형에 투입하는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활용하였다. 12개 변수들 가운데 종속변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차례로 투입해 회귀모형을 찾은 결과, 우선 복지관과 노인교실 활동, 건강취약노인과 무소득노인, 세 변수들이 주요 독립변

수들로 파악되었다. 12개의 독립변수 중 3개의 변수만이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회귀분석모형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통계량을 제시하면, 먼저 결정계수인 R²값은 모형 1인 경우(‘복지관과 노인교실 활동’)에는 .235, 모형 2인 경우(‘복지관과 노인교실 활동’에 ‘건강취약노인’을 추가한 경우) .530로, 다시 모형 3에서는 (앞의 2개의 변수에 ‘무소득노인’ 변수를 추가한 경우) .638로 나타났다. 수정된 R²값은 모형1은 .202, 모형 2는 .487, 모형 3은 .587로 나타났다. 또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값의 경우 모형 1은 .014, 모형 2는 .001, 모형 3은 .020으로, 비교적 양호한 유의수준을 보였다. 오차들의 독립성 검정을 위한 Dubin-Watson 분석 결과는 2.039로 2에 가까워 각 관측 값들의 분산들 간에 독립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분석결과: 회귀 모형 요약

| 모형 | R | R제곱 | 수정된 R제곱 | 추정값 표준오차 | 통계량변화량 | | |
|----|------|------|---------|----------|---------|--------|-----------|
| | | | | | R제곱 변화량 | F 변화량 | 유의확률 F변화량 |
| 1 | .485 | .235 | .202 | 69.99528 | .235 | 7.073 | .014 |
| 2 | .728 | .530 | .487 | 56.11248 | .295 | 13.789 | .001 |
| 3 | .799 | .638 | .587 | 50.38035 | .108 | 6.291 | .020 |

<표3>의 표준화 계수에서 보여주듯이, 독립변수 중 ‘건강취약노인’(-.612), ‘복지관과 노인교실 활동’(.535), ‘무소득노인’(.339) 순서로 높은 설명력을 보여준다. ‘건강취약노인’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자원봉사 참여도가 낮고, 복지관과 노인교실 활동이 활성화된 자치구일수록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소득이 없는 ‘무소득노인’이 많고 소득이 있는 노인들이 적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게 나

타났다. 소득활동을 위해 먹고살기 바쁜 노인들은 자원봉사 참여가 어렵고, 이런 노인들이 많은 지역의 노후 자원봉사활동은 제약이 뒤따른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비교적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복지관이나 노인교실(노인대학) 등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비교적 많이 참여하는 지역에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다. 한편 소득이 없지만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경우, 자신의 소득과 크게 상관없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여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노인들 가운데 임금소득, 자산소득 등 어떤 형태의 소득이 있거나 없는지에 따라 자원봉사 참여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지만, 자료의 한계 때문에 후속 연구로 미룰 수밖에 없다.

또 사회단체 활동 중에서 취미활동이나 종교단체 활동은 노후 자원봉사활동과 어떤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단체활동 중 복지관과 노인교실(노인대학) 활동만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그리고 노인교실과 노인대학이 노후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회귀모형과 (비)표준화 계수

| 모형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 | 유의확률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1 (상수) | 98.042 | 28.545 | | 3.435 | .002 |
| 복지관과 노인교실 활동 | 7.357 | 2.766 | .485 | 2.660 | .014 |
| 2 (상수) | 165.675 | 29.246 | | 5.665 | .000 |
| 복지관과 노인교실 활동 | 8.728 | 2.248 | .575 | 3.882 | .001 |
| 건강취약노인 | -6.490 | 1.748 | -.550 | -3.713 | .001 |
| 3 (상수) | 131.538 | 29.576 | | 4.448 | .000 |
| 복지관과 노인교실 활동 | 8.111 | 2.034 | .535 | 3.988 | .001 |
| 건강취약노인 | -7.223 | 1.596 | -.612 | -4.525 | .000 |
| 무소득노인 | .208 | .083 | .339 | 2.508 | .020 |

4. 논의 및 결론

통계분석의 결과, 노후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모두가 부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노후의 사회활동 중에서는 종교단체, 취미모임, 노인정 활동보다는 복지관과 노인교실 활동이 활성화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였다. 경제활동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소득의 경우, 소득 유무가 자원봉사 참여도의 차이를 낳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어, 소득이 있는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자원봉사 참여도가 비교적 낮고, 반대로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문제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어려운 건강취약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참여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인적 자본에서 건강문제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를 지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이룬 부분에서 논의되었던 ‘대체’ 가설과 ‘보충’ 가설로 검증해보면, ‘보충’과 ‘대체’ 가설 각기 부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보다 우선적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보충’ 가설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과 사회자본 모두가 풍부한 지역이 비교적 높은 자원봉사참여율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분석 결과는 인적 자본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건강취약노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참여도가 낮고 반대로 ‘건강취약노인’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문제가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제약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런데 인적 자본 변수들 중에서 ‘무소득노인’ 변수도 주요 변수로 확인된 것은 소득활동을 하는 노인들보다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오히려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다

는 ‘대체’ 가설을 지지해주는 것이다. 소득활동으로 먹고살기에 바쁜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어렵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자들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계층이지만, 일부 노인들의 경우 다른 노인들에 비해 퇴직이 늦거나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사회자본 측면에서는 ‘대체’ 가설보다는 ‘보충’ 가설이 지지를 받았다. 다양한 사회활동 중에서 전통적인 종교활동보다는 복지관과 노인교실 활동이 보충적 역할을 한다는 ‘보충’ 가설이 지지를 받은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자본의 주요 지표가 되는 복지관과 노인교실(노인대학)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참여도가 비교적 높고 그런 활동이 적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종교단체활동, 취미활동, 노인정(경로당)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어떤 의미있는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은 것도 주요 결과이다. 지역보다 개인 차원의 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종교기관이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전파하고 또 직접 자원봉사자를 충원하는 수요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밑거름이 되는 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장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종교단체 활동을 중시했다. 그러나 이번의 지역 차원의 연구에서는 종교단체 활동이 노후 자원봉사활동 수준의 지역간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는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교단체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중요한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보충’ 가설은 지지받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사이의 노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에 관한 분석은 ‘활성적 공동체’와 ‘활성적 노화’ 이론에 대해 몇 가지 경험적 중요성을 확인해준다. ‘활성적 공동체’의 활성적 노화가 이론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일정한 소득을 갖고 일하거나 또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공동체가 그렇지 않은 공동체에 비해 비

교적 높은 수준의 자원봉사참여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험적 분석 결과는 이같은 이론적 논의에 대해 지지와 비판, 양면 모두를 함께 보여준다. 지지 측면에서는 건강취약 노인들이 적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참여도가 비교적 높다는 분석결과가 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해서 ‘활성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반대로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더 높은 자원봉사 참여도를 보여준다. 또 ‘활성적 공동체’의 ‘활성적 노화’ 이론은 노후 사회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중시하지만, 지역의 복지관과 노인교실(노인대학) 활동을 제외한 다른 종교단체 활동이나 취미와 여가 활동, 노인정 활동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나마 복지관과 노인교실 활동이 활성화 공동체와 활성화 노화의 이론적 근거를 지지하는 중요한 변수로 분석된 것이다. 그럼에도 노인들의 복지관과 노인교실 참여를 통한 봉사활동의 현황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것이 이번 연구의 한계이다.

한국 사회에서 비교적 노후 생활의 사회, 경제, 문화적 여유가 다른 지역보다 더 풍부한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자원봉사활동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이 같은 봉사활동의 비활성화 현실은 ‘활성적 노후’를 기대하는 노인 개인들의 능력과 ‘활성적 공동체’의 기회 제공과 여건 마련의 뒷받침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이 가장 저조하지만, 한번 참여한 노인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에서(볼런티어21 2008; 통계청 2009), 노후 자원봉사활동은 지금 50대 베이비부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2011년 10월 7일 접수, 2011년 11월 14일 수정, 2011년 11월 28일 확정)

참고문헌

- 볼런티어21. 2008.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현황』.
- 서울특별시. 2009. 『서울 서베이 2009』.
- 이선미. 2001. “시민참여로서의 자원활동.” 『시민사회와 NGO』. 1(1).
- 이현기. 2009. “생산적 노화활동으로서 노인자원봉사활동.” 『노인복지연구』 45. 317-346.
- 이현기. 2010. “노인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자본.” 『노인복지연구』 50. 263-290.
- 정병은, 이기홍. 2008.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953-970.
-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 254-255.
- 주성수. 2005. 『자원봉사 : 이론, 제도, 정책』. 도서출판 아르케.
- 최희경. 2010. “신노년 정책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정책』. 17(3). 41-65.
- 통계청. 2009. 『사회조사 보고서』.
- Bengtson, V., Burgess, E. and Parrott, T. 1997. "Theory, Explanation, and a Third Generation of Theoretical Development in Social Gerontolog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2B(2). S72-S88.
- Börsch-Supan, A., Hank, K. and Jürges, H. 2005. "A New Comprehensive and International View on Aging." *Mannheim Research Institute for the Economics of Aging*.
- Butrica, B., Johnson, R. and Zedlewski, S. 2007. "Volunteer Transitions among Older Americans." Washington. D.C. : The Urban Institute.
- Caro, Francis G., and Scott A. Bass. 1997. "Receptivity to Volunteering in the Immediate Postretirement Period."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6. 427-441.
- Caro, F., Bruner-Canhoto, L., Burr, J. and Mutchler, J. 2005. "Motivation for Active Aging: Results of a Pilot Study." Gerontology Institut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http://www.mccormack.umb.edu/centers/gerontologyinstitute/WorkingPapers/Motivation forActiveAgingPilotv3.pdf](http://www.mccormack.umb.edu/centers/gerontologyinstitute/WorkingPapers/Motivation%20forActiveAgingPilotv3.pdf)
- CNCS(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2006. "Volunteer Growth in America." http://www.nationalservice.gov/pdf/06_1203_volunteer_growth.pdf
- CNCS. 2007a. "Keeping Baby Boomers Volunteering."
http://www.nationalservice.gov/pdf/07_0307_boomer_report_summary.pdf
- CNCS. 2007b. "The Health Benefits of Volunteering."
http://www.nationalservice.gov/pdf/07_0506_hbr.pdf
- CNCS. 2010a. "Volunteering in America : Issue Brief."
<http://www.volunteeringinamerica.gov/assets/resources/FactSheetFinal.pdf>
- CNCS. 2010b. "Older Adult Volunteer Rates."
<http://www.volunteeringinamerica.gov/rankings/States/Older-Adult-Volunteer-Rates/2010>
- Connors, D. 2008. "Transforming 50+ Volunteering" Voluneer Canada.
- Craig, G. 2004. "Citizenship, exclusion and older people." *Journal of Social Policy*, 33(1). 95 - 114.
- De Hart, J. and Dekker, P. 1999. "Civic Engagement and Volunteering." van Deth et al. 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Routledge. 75-107.
- Dingle, A. 2001. "Involving Older Volunteers. A Good Practice Guide" The 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London.
[http://www.ivr.org.uk/Institute +of+ Volunteering +Research%2fMigrated +Resources% 2fDocuments%2fO%2fOlder_volunteers.pdf](http://www.ivr.org.uk/Institute%20of%20Volunteering%20Research%20Migrated%20Resources%20Documents%20Older_volunteers.pdf)
- Einolf, C. 2009. "Will the Baby Boomer Volunteer during Retirement?"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8(2). 181-199.
- Erlinghagen, M. and Hank, K. 2005. "Participation of Older Europeans in Voluntary Work." Mannheim Research Institute for the Economics of Aging.
- Herzog, A. and Morgan, J. 1992.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Value of Productive Activities." *Research on Aging*. 14(2). 169-198.

- Herzog, R. and House, J. 1999. "Volunteering and Mortality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54(3). S173-S180.
- Hong, S., Morrow-Howell, N., Tang, F., Hinterlong, J. 2009. "Engaging Older Adults in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8(2). 200-219. HRSD(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2009. "Volunteering Among Seniors."
- Jones, K. 2006. "Giving and Volunteering as Distinct Forms of Civic Engagement."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5(2). 249-266.
- Kaskie, B., Imhof, S., Cavanaugh, J. and Culp, K. 2008. "Civic Engagement as a Retirement Role for Aging Americans." *The Gerontologist*. 48(3). 368-77.
- Lee, Y. and Brudney, J. 2008. "The Impact of Volunteering on Successful Ageing". *Voluntary Action*. 9/1. 21-35.
- Lie, M., Baines, S. and Wheelock, J. 2009. "Citizenship, Volunteering and Active Ageing."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3(7). 702-718.
- McPherson, J. Miller, and Thomas Rotolo. 1996. "Diversity and Change in Voluntary Group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179-202.
- Musick, M., Herzog, A., and House, J. 1999. "Volunteering and Mortality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54. 173-180.
- Musick, M. and Wilson, J. 2003. "Volunteering and Depression: The Role of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in Different Age Groups." *Social Science & Medicine*. 56(2). 259-269.
- Musick, M. and Ruthford, J. 2006. "A Golden Opportunity: A Guide to Attracting and Retaining Older Volunteers." REACH, London.
- Mutchler, J. Burr, J., Caro, F. 2003. "From Paid Worker to Volunteer." *Social Forces*. 81(4). 1267-1293.
- OECD 2009. "Society at the Glance." www.oecd.org/els/social/indicators/SAG
- Okun, Morris A., Alicia Barr, and A. Regula Herzog. 1998. "Motivation to Volunteer by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13. 608-621.

- Prime, D., Zimmeck, M. and Zurawan, A. 2002. 'Active Communities: Initial Findings from the 2001 Home Office Citizenship Survey'. Home Office, London.
-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light, A. 2005. "The Age of the Volunteer." *Voluntary Action*. 4(2). 49-62.
- Smith, D. 1994. "Determinants of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Volunteering: A Literature Review."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3. 243-63.
- Smith, J. 2000. "Active Participation Beyond Employment," Hirsh D. ed., *Life After 50 : Issues for Policy and Research*. London: Joseph Rowntree Foundation.
- Smith, D. and Gay, P. 2005. "Active Aging in Active Communities: Volunteering and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Bristol: UK. <http://www.jrf.org.uk/sites/files/jrf/1861347626.pdf>
- Thoresen, D. and McMahon, K. 1992. "Volunteerism and Mortality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ly." *Journal of Sociology*. 97(6). 1612-1638.
- Van Willigen, M. 2000. "Differential Benefits of Volunteering Across the Life Course." *Journ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s*. 55B (5). S308-S318.
- Warburton, J., Terry, D., Rosenman, L., Shapiro, M. 2001. "Differences between Older Volunteers and Nonvolunteers." *Research on Aging*. 23(5). 586-605.
- Wheeler, J., Gorey, K. and Greenblatt, B. 1998. "The Beneficial Effects of Volunteering for Older Adults and the People They Serve: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7(1). 69-80.
- Wilson, J. and Musick, M. 1997a.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ing" . 62. 694-713.
- Wilson, J. and Musick, M. 1997b. "Work and Volunteering: The Long Arm of the Job." *Social Forces*/ 76. 251-273.
- Wilson, J. and Musick, M. 1999. "The Effects of Volunteering on the Volunteer."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2(4), 142-168.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2. "Active Ageing : A Policy Framework."
Geneva. <http://www.who.int/ageing/publications/active/en/>

Volunteering among Seniors in the "Active Community"

Sung Soo Joo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volunteering levels among grassroots districts of Seoul Metropolitan City, utilizing a data set of 46,153 persons which covers subsets of seniors(more than 60 years old) and other statistical and survey data for independent variables. Focusing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active aging' and 'active community' concerning the socioeconomic activities of senior person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volunteering levels. With the level of volunteering as a dependent variable and human and social capital and economic activities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volunteering among seniors in the 25 districts of Seoul Metropolitan City.

Key words : Senior volunteering, active community, active aging, civil society, social capital. human capital, economic activities, income